

# “연인”으로 사극 매력에 푹 빠졌어요

‘종영’ MBC 드라마 ‘연인’ 이학주



성들의 모습을 다루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줬다는 점이 색다르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단편영화 ‘발명가’로 데뷔한 이학주는 데뷔 10년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애인을 폭행하고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사실적으로 연기해 2020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남자 우수연기상을 받았고,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선 장관 수행비서 김수진 역할로 작년 청룡 시리즈어워즈에서 남자 조연상을 받았다.

코믹과 장르물, 로맨스를 오가며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온 이학주이지만, 사극 연기는 ‘연인’이 처음이다. 이학주는 “사극은 말투에 신경 써야 하다 보니 기지를 발휘해서 대사를 하기 어렵다”면서도 “색다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재미있어서 기회가 닿으면 또 사극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톡’만 보고 절친을 찾아라

新 예능 ‘서치미’ 기자간담회  
KBS2·U+모바일tv 매주 공개  
휴대전화 채팅방 대화 보고  
지인을 맞춰가는 과정  
전현무 “한번도 못본 예능”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있는데, ‘서치미’는 그런 게 없어요. 단언컨대 어느 플랫폼에서도 본 적 없는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방송인 전현무)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메시지만 보고도 나와 절친한 사람과 그를 사칭하는 사람을 구별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서치미’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풀어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전현무는 22일 서울 마포구 LG 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늘 새로운 콘텐츠에 갈망이 있는데, ‘서치미’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서치미’는 U+모바일tv와 KBS 2TV에서 볼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 U+모바일tv에 매주 월·화요일 밤 12시 공개되고 있고, KBS 2TV에서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9시 45분 방송한다.



MC 전현무

전현무는 “이 사람이 나와 절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요즘 스타일인 ‘톡’으로 확인하는 형식이 굉장히 재미있다”며 “비슷한 프로그램조차 없는 새로운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서치미’는 매회 새로운 ‘플레이어’가 출연해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보고 채팅에 참여하는 이들 중 자기 지인이 누군지 맞추는 과정을 다룬다. 플레이어는 정답을 맞히면 1천만 원을 받는다.

플레이어가 밖에서 채팅방을 보며 답을 알아내려 고심하는 동안 그의 지인은 ‘서치미단’ 세 명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플레이어를 관찰한다. 서치미단 이은지, 광범, 손동표는 플레이어의 지인을 사칭하며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낸다.

공개된 1·2회에서 플레이어로 출연한 여행 유튜버 광범(본명 광준민)과 코미디언 황제성은 자신의 지인을 쉽게 찾아낼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채팅이 시작되자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웃음을 자아냈다.

MC 전현무는 스튜디오에서 서치미단과 함께 플레이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각종 과제를 제시한다.

전현무는 “너무 쉽게 들켜도 재미없고 반대로 너무 헤매는 모습만 보여도 시청자들이 몰입하지 못한다”며 “(플레이어를) 쥐락펴락하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했다.

공동 연출자인 김주형 PD는 “과거 SBS 예능 ‘런닝맨’을 연출할 때 연인이 있는 하하, 지석진, 송지효도 출연할 것”이라며 “이미 녹화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김 PD는 “출연자들이 의외로 실제 지인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답답해하고 몰입하는 모습이 재미 요소”라고 강조했다.

며칠 간격을 두고 U+모바일tv에 선공개한 뒤 지상파에 방송하는 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방식의 편성이다.

이를 두고 임형택 PD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성”이라며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로 제작 환경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은 플랫폼에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선의 불합리한 모습을 제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게 작품의 의의 되니까 좋았죠.”

배우 이학주(사진)가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연인’에서 연기한 남연준은 여러 면에서 주인공 이장현(남궁민 분)과 대비되는 인물이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정절’을 대하는 태도다. 병자호란 피난길에 오랑캐와 마주했다는 유길채(안은진)에게 이장현은 “힘들었을 테니 안아줘야지”라고 답하지만, 연준은 똑같은 고백을 한 아내 경은애(이다인)를 씩씩하게 대한다.

연준은 이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김삼’으로 낙인찍혔지만, 정작 이 인물을 연기한 이학주는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학주는 이날 서울 마포구 SM C&C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비록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쁜 마음으로 그런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그 시대의 사상에 매몰됐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준은 조선시대의 인간상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이 인물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배우의 말처럼 연준은 드라마 초반부터 전형적인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연준은 작은 마을 농군의 여러 젊은 선비들 가운데 가장 결기가 있고 울골은 태도로 주인공 길채의 사랑을 받지만, 정작 연준이 좋아하는 것은 길채와 절친한 은애다.

이후 연준은 병자호란이 터지자 연준은 목숨을 걸고 남한산성에 갇힌 임금을 구하겠다며 의병을 모아 길을 떠난다. 목숨을 아끼지

전형적인 조선시대 선비 역할  
유연한 사극의 이장현과 대비  
불합리한 시대상 보여줘 만족  
사극의 색다른 환경 재미있어

않고 충성을 바친 점을 인정받아 벼슬길에 오른다.

연준은 아처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에 충실하지만, 그의 이상은 점점 현실과 멀어진다. 임금은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저버리고,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멀어진다.

이학주는 “연준을 연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은애를 향한 마음이 큰데도 자기 생각에만 매몰돼서 상처를 주고 자신도 상처받는 인물이 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어한다”며 “그가 원하는 세상은 완벽한 신하와 완벽한 백성이 있어야 이를 수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연준이 점차 깨닫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준은 드라마의 배경이 된 조선시대의 부조리한 사상을 상징하는 역할도 하지만, 길채의 첫사랑이기도 하다.

이학주는 “농군리 도령 중에 연준이 가장 ‘스마트’한 느낌이 있어서 길채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며 웃어 보였다.

‘연인’이 최고 12%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요인을 묻자, 이학주는 “그 시대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흔치 않은 작품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학주는 “그간 병자호란이라고 하면 높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다”며 “연인’은 백

##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첫날 20만명

박스오피스 1위...올 한국영화 4번째로 높은 오프닝 스코어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사진)’이 개봉 첫날 2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흥행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3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개봉일인 전날 20만3000여 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로 진입했다.

매출액 점유율은 73.1%를 기록해 2위인 ‘프레디의 피자가게’ (1만4000여 명·5.4%)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서울의 봄’의 개봉일 관객 수는 올해 나온 한국영화 중 네 번째로 많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3’ (74만여 명), 여름 성수

기 대작 ‘밀수’ (31만여 명), ‘콘크리트 유토피아’ (23만여 명)의 뒤를 이었다.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CGV가 실제 관객객 평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골든에그지수에서는 100% 만점에 98%를 기록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의 봄’ 예매율은 52.0%, 예매 관객 수는 18만6000여 명으로 당분간 흥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신군부 세력과 이에 맞서는 사람들의 긴박한 9시간을 그렸다. /연합뉴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동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요미,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